

잡아함 49. 아난경(阿難經) ①

날짜: 1월 8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35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존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.

“만일 신심이 있는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너에게 찾아와 ‘어떠한 법에 대해서 그 나고 멸함을 아는가’고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?”

아난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세존이시여, 만일 어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제게 찾아와 그렇게 묻는다면, 저는 ‘색이 바로 나고 멸하는 법임을 알고, 수 · 상 · 행 · 식이 나고 멸하는 법임을 안다’고 대답하겠습니다. 세존이시여, 만일 장자나 장자의 아들들이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.”

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.

“훌륭하고, 훌륭하구나. 마땅히 그렇게 대답해야 하느니라. 무슨 까닭인가? 색은 나고 멸하는 법이요, 수 · 상 · 행 · 식은 나고 멸하는 법이기 때문이다. ‘색은 나고 멸하는 법이다’고 아는 것을 색을 아는 것이라 한다. 수 · 상 · 행도 마찬가지이며, ‘식은 나고 멸하는 법이다’고 아는 것을 식을 아는 것이라 하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